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식 성료...
“양국관계 황금기”
인도네시아 정관계 인사·교민 등 1천500명 모여

MONTHLY KOFA

코파의

칭찬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09**
2023/10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2023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인도네시아, 탈달러화 태스크포스 출범



‘탈달러화’ 흐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5일 탈달러화(De-dollarization)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ask force, 전담기구)를 설립했다. 이번에 출범한 태스크포스는 석유 및 상품 거래에 있어서 자국 통화 활용과 외환보유고의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탈달러화 태스크포스는 중앙은행, 관련 부처, 금융감독청,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정부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이다. 페리 와르지요 중앙은행장은 “태스크포스는 탈달러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기관 간 조정력을 향상시키고 인도네시아와 협력국가 간 거래에 루피화와 결제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동부누사틍가라 라부안바조에서 열린 제42차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국의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결제 통화협정’ (LCS)을 체결했다.

아세안은 이전부터 중앙은행 간 직거래를 통해 수출입 회사들이 자국 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달러 의존도와 환전 비용을 줄이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낮추기 위해서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중앙은행 간 직거래를 통해 QR코드를 사용, 각국에서 환전 없이 자국 전자 지급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이 방식에는 싱가포르와 필리핀도 합류할 예정이다. 역내 무역에서 당장 달러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달러 가치가 오를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은 아직 건재하다. 하지만 미국의 급속한 금리 인상과 부채한도 상향, 서방과 중·러간 대립 구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위험을 ‘헤지’하려는 중남미와 중동국가들이 보유 외환을 달러 대신 위안화를 대체하려는 ‘탈달러화’가 진행 중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경협, 신임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대사’ 선임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18일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대사를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 한경협은 “신임 김창범 부회장은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토대로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탁월한 분으로 류진 회장을 도와 한경협이 글로벌 싱크탱크로 환골탈태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

줄 적임자”라고 선임배경을 설명했다. 김창범 부회장은 1981년 외무부에 입부(제15회 외무고시)한 이래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

출처 : 포춘코리아



▲김창범 신임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

“내년 선거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보전의 최대 위험요소”

막대한 선거자금 필요한 정치인들, 기업에 돈받고 환경 규제 완화 우려

인도네시아에서 내년 2월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을 동시에 뽑는 대규모 선거가 열대우림 보전에 최대 위험 요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환경 운동가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들에 산림 벌채가 용이하도록 허용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비교정치인류학과 워드 베렌소트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선거 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정치인이 천연자원 회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렌소트 교수는 “자원 회사들이 산림 보호 조치를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인들이 선거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방법”이라며 “선거 때마다 산림 보호 조치는 압박 받아왔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을 동시에 뽑는 대규모 선거가 예정돼 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2월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6월 다시 결선 투표를 치른다. 여기에서 11월에는 각 주 주지사 등을 뽑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1년 내내 선거를 치르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투표 매수 행위가 만연해 있고, 선거 자금 지출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선거 때마다 엄청난 선거 자금이 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 1이 선거 때 금품을 받는 관행에 익숙하며 투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2013년 500명의 정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거에 승리한 지역 단체장 후보는 평균 150만 달러(약 20억원), 주지사는 평균 1천만 달러(약 134억원)를 선거

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 영국의 산림 보호 단체 ‘산림인인프로그램’ (FPP)의 마커스 콜체스터 수석 정책 고문은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이 기업에 자금을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면책 특권과 정경유착이 사회 정의와 환경 보호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열대우림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광산 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다른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해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원시림 개간을 영구적으로 막는 등 나름 강력한 정책으로 산림 벌채를 막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비영리 환경연구기관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넓은 열대우림을 잃은 나라다.

[연합뉴스]



HKI 韓陳工業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IJ 韓陳工業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식 성료... “양국관계 황금기” 인도네시아 정관계 인사·교민 등 1천500명 모여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수교 50주년을 맞아 수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대규모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과 아흐마드 바사라 국민평의회 부의장 등 인도네시아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각국 외교 사절, 교민 등 약 1천500명이 함께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개방 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며 “양국 관계의 황금기를 맞아 미래를 위해 더욱 강력하고 깊은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영상을 통해 케이팝 걸그룹 ‘시크릿 넘버’의 디타 카랑과 보이그룹 ‘소디엑’의 자얀 등 인도네시아 출신 멤버들을 언급하며 양국 교류가 경제나 외교뿐 아니라 문화나 인적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식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기념 리셉션에서 양국 연합 합창단이 국기를 합창하고 있다. 2023.9.19. laecorp@yna.co.kr

“한국인들은 ‘성장의 중심지’가 될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굳게 믿고 있으며, ‘골든 인도네시아’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이 함께 다양한 공연을 준비해 의미를 더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

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들을 포함한 대사관 직원들, 인도네시아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JIKS) 학생 등 50명으로 구성된 양국 연합 합창단이 양국 국가를 합창했다. 또 대사관의 이준승 참사관

이 직접 작사 작곡한 50주년 기념 헌정곡 ‘플라이 투게더’를 이 참사관과 대사관 직원,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한국 담당 바드 나빌 물라켈라 국장과 직원들이 함께 불렀다. 교민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와 수교 50주년 기념 대사관 홍보대사인 인도네시아 가수 아산티, 팝페라 그룹 ‘포엣(Poet)’의 공연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리셉션장에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위한 홍보 부스를 설치했으며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전통 문양인 바틱을 넣어 만든 아이오닉5 한정판도 전시됐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수교 50주년 기념 도서를 발간해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식 (자카르타=연합뉴스)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기념 리셉션에서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9.19. photo@yna.co.kr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T 금지]

이 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으며, 양국은 ‘최초’ 또는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관계”라며 “양국이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가루다항공, 인천-인도네시아 노선 증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가루다항공)의 인천-인도네시아 국제선 항공편이 증편된다.



17일 Garuda항공에 따르면 12월부터 인천-발리 직항 노선을 주 4회로 증편한다. 오전 11시 35분에 인천을 출발, 오후 5시 45분에 발리에 도착하는 여정으로 발리에서 여유로운 저녁 일정을 즐기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귀국 편은 발리에서 오전 01시

30분에 출발하여 인천에 오전 9시 15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Garuda항공은 인천-자카르타 노선 역시 지난 9월 8일부터 매주 화/수/금/토 주 4회로 증편 운항하고 있다. 자카르타 환승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주요 도시로의

당일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시장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운항 편 확대에 발맞춰 다양하게 제공되는 각종 우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Garuda인도네시아는 BMW 인도네시아와 함께 ‘더 프레스티지 서비스’도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Garuda인도네시아의 이용 빈도가 높은 승객 및 기업 파트너를 위한 서비스다. 추천을 통해 고객이 위치한 곳에서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또는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까지 BMW IX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9월 18일 까지 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Garuda항공은 19개 주요 항공사들로 구성된 글로벌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 회원사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스카이팀 항공사들과의 마일리지 교차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여 보다 확대된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aruda항공을 탑승하는 경우에도 예약 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번호를 제시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적립이 가능하다.

[데일리인도네시아]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중국 경기 둔화? 인도네시아 수출업체들은 아직 체감 못해



▲북부자카르타 판중브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올해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속될지 여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관계자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아 산띠는 8월 인도네시아의 비석유·가스(NOG) 수출액이 7월보다 9.36% 증가한 53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아말리아는 15일 최신 무역 데이터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견고하며, 물론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7월에 비해 6.52% 감소한 51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인도네시아는 8월에 22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했으며, 수입액은 188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 두 수치 모두 올해 들어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2022년 8월 이후 수출은 21.21%, 수입은 14.77% 감소했다.

반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8월 인도네시아 수출은 5.47% 증가했고 수입은 3.53% 감소했다.

그 결과 8월 인도네시아의 무역 흑자 규모는 7월의 13억 1천만 달러에서 31억 2천만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무디스 애널리틱스 전망치인 15억 달러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이다.

8월은 인도네시아의 무역 수지가 4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달이다.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강국인 중국은 8월 전체 수출의 25.99%를 차지하며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의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 선적의 31.99%로 훨씬 더 크다.

아말리아는 팜유와 팜유 파생상품이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이지만, 인도네시아 제철에 사용되는 필수 합금인 페로니켈과 니켈 선철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한 자카르타의 ‘다운스트림 정책’ 덕분에 철강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자카르타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거시 경제 발전을 주시하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이 최근 몇 달 동안 경기 둔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기업 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았기 때문

에 중국의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5%에서 2분기 6.3%로 개선되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높은 부채로, 펀드 매니저이자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회장인 루치르 사르마는 2008년 미국 부동산 위기처럼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르마는 9월 10일자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문에서 최악의 경우 중국이 “본격적인 금융 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기술력”에 힘입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에 대한 실망감은 기대 이하의 소비자 지출과 세계 경제의 부진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쁘르마다 은행(Bank Permat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빠르데네는 중국의 꾸준한 수요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S&P 글로벌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8을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의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반영한다.

그러나 조수아는 중국의 현재 경제 문제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조수아는 15일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둔화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상품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이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나몬 은행의 경제학자 이르만 파이즈는 15일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원자재는 철강과 광물성 연료이며 이들 모두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 이르만은 “8월 수출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은 가격이었으며, 물량은 둔화됐다”며 무역 파트너의 경기 둔화가 일반적으로 물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인도네시아 수출, 특히 광업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요는 나중에 세계경제와 함께 증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고추와 호두 이야기

한자어에서 유래한 단어를 찾아보면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말의 특징 중의 하나가 모음조화 현상이 잘 발달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역행하는 구조가 자주 보인다. 모음조화의 예를 보면 ‘찰랑찰랑’ ‘출렁출렁’ ‘강충강충’ ‘경충경충’ 등이 있다. 즉 같은 부류의 모음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요즘에 와서 ‘강충강충’도 표준어로 삼았으니 모음조화 현상이 깨져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아름다와’ 보다는 ‘아름다워’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추는 원래 한자로 ‘고초(苦草)’라고 했다. 맵기 때문에 괴롭다고 해서 ‘괴로울 고(苦)’자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한자어는 식품에 유난히 많다. 그중에 호두도 그렇다. 한자로는 ‘호도(胡桃)’라고 한다. 주로 호두나무의 열매(속살)에 지방이 많고 맛이 고소하여 식용하며



한방에서는 변비나 기침의 치료 등에 쓴다)를 말한다. 그런데 지금은 호도라고 하면 비표준어다.

그러므로 작두·호두·고추·앵두 등의 단어는 모두 양성모음으로 발음하던 것이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음성모음(ㅏ)이 주를 이루는 단어로 바뀌고 말았다. 이제는 우리말의 특징이 모음조화에 있다고 하는 말도 서서히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언어는 항상 변한다. 그래서 역사성·사회성이 있다고 한다.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화회 회장
저서: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muns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²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munscb.com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munscb.com, munscb33@gmail.com
www.muns.id

자바 전역 매립지에서 빈번한 화재 발생...건기와 엘니뇨 때문

올해 엘니뇨가 가세한 건기가 길어지면서 중부자바와 서부자바의 여러 도시 쓰레기 매립지에서 고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중부자바 수라카르따 소재 뿌뜨리 쩌뽀 (Putri Cempo) 쓰레기 매립지 화재로 9월 16일에 시작된 불이 쓰레기산 2 헥타르를 태웠다.

당국은 이 화재가 장기화된 건기로 인한 고온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부자바 기상청은 수라카르따를 비롯한 역내 여러 도시와 군청에 이미 건조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수라카르따 환경국 그리스피나 하리안피는 쓰레기산에서 발생한 메탄가스가 고온에 의해 발화된 것이라고 화재 원인을 분석했다. 메탄가스는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효물질로 쓰레기 매립지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

뿌뜨리 쩌뽀 쓰레기 매립지는 17헥타르 규모로 소방관들이 화재진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국가재난방재청(BNPB)에서는 풍향 변화와 산더미처럼 쌓인 인화성 쓰레기로 인해 불이 빨리 번지고 있어 진화에 어려



▲2023년 9월 19일 중부자바 수라카르따 지역의 뿌뜨리 쩌뽀 매립지의 쓰레기산에서 한 소방관이 남은 불씨를 살피고 있다.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재청(BNPB)은 소방 헬기를 보내 화재 진압을 도왔다. (사진=안따라/Mohammad Ayudha)

움을 겪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내놓았다.

화재 사흘 차였던 지난 18일 기준 수라카르따의 여러 소방서와 방재 기관들이 45개의 소방팀을 꾸려 현장에 투입했다. 국가재난방재청 파자르 스페야완 부국장은 수라카르따로부터 소방 헬기를 이용한 물폭탄 공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뿌뜨리 쩌뽀 쓰레기 매립지 화재가 인근 여러 주택지에 연무 피해도 일으켜 수라카르따 방재국은 인근 모조송오 지역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포함한 200여 명의 주민들이 호흡곤란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모조송오 지자체가

건강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의료조치를 제공했다.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50미터 거리 안에 사는 주민들의 소개를 종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집을 떠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능력 감소 뿌뜨리 쩌뽀의 화재는 최근 자바 전역의 쓰레기 매립지를 강타하고 있는 화재사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부자바 주 스마랑의 자띠바랑(Jatibarang) 쓰레기 매립지도 지난 18일(월)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에서는 아직도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번진 불길은 19일에야 잡혔다. 하지

만 소방관들은 산적한 쓰레기 더미 속에 응축된 메탄가스가 추가로 발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직도 하치장 곳곳에 물을 분사하고 있다.

간자르 빠라노위의 임기종료로 중부자바 주지사 직무대행이 된 나나 수자나는 자띠바랑 매립지의 추가 화재 방지를 위해 국가재난방재청에 소방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스마랑 시장 하베아리파 구나르얀피 라하유는 소방 헬기가 수라카르따 뿌뜨리 쩌뽀 매립지 임무를 마치는 대로 자띠바랑에 투입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서부자바의 쓰레기 매립지 두 곳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찌르본 소재 꼬빠 루후르(Kopi Luhur) 쓰레기 매립지에서 9일 화재가 발생해 3헥타르를 태웠는데 불길은 빨리 진압되었지만 화재로 발생한 연무가 인근 지역을 뒤덮어 주민 1,500여 가구가 며칠동안 대피해야 했다.

가장 큰 관련 화재는 8월 19일 발생한 서반둥군 소재 사리묵띠(Sarimukti) 쓰레기 매립지 화재로 지금까지 무려 20헥타르를 태웠다. 리드완 까밀 퇴임 후 서부자바 주지사 직무대행이 된 베이 마흐

무딘은 지난 19일 아직도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계속하는 중이며 20% 정도의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가 모두 잡힌 후 앞으로는 비슷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원래 쓰레기 처리용량의 절반만 매립지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헥타르 규모의 사리묵띠 쓰레기 매립지는 반둥시와 인근 지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 1,500톤 중 80%를 버려왔던 곳이다.

엘니뇨 영향 태평양이 장기간 태양열에 데워져 인도네시아 전역에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는 엘니뇨 현상이 건기와 겹쳐 올해 더 길고 건조한 건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기상청(BMKG)은 엘니뇨 현상이 이번 달 그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남부 수마트라의 팽렘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도 산불로 인한 연무가 짙게 뒤덮고 있다.

환경삼림청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매년 1월에서 7월 사이 9만 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화재로 소실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주)정석 테크 아바디

PT. JEONGSUK TECH ABADI

Contractor, Engineering, Electrical & Supplier

전기공사

30

년의 시간을
한인기업과 함께 해 왔습니다!



Jl. Lingkar CBD Palem Semi Ruko Kav. No.33-35, Kel. Panunggangan Barat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Zip Code 15139
Tel. 021 39720121 Email. baeksy68@hanmail.net

월드옥타, 발리서 아세안 경제 현안 공유·네트워킹

지역경제인대회 및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14일 '2023 아세안 경제인대회' 개최식을 시작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갖는다. 월드옥타는 자카르타지회(지회장 김종헌) 주관으로 14일부터 나흘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13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만에 개최됐다. 21개 지회에서 150여 명의 한인 경제인과 지역 정부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개최식에는 월드옥타에서 장영식 회장과 김우재·박기출 명예회장, 이마태오 수석부회장, 이종원 차세대 담당 부회장, 윤두섭 동남아 담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와 전종윤 발리 분관 총영사, 이장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장, 김동



▲기념촬영하는 월드옥타 '2023 아세안 지역 경제인대회' 참가자들 [월드옥타 제공]

고 설명했다. 대회에서는 '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대응'을 위한 현지 전문가 초빙 강연과 토론회 등이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지역 내 유명 사업을 소개하고 성공 사례를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16일에는 성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의 기조연설과 폐회식 등이 예정돼 있다. 대회 기간에는 '아세안 대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15개 지회에서 100여 명의 차세대 한인 경제인들이 참여한다. 이종원 차세대 담당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아세안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이 무역실무, 창업의 노하우를 익히고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2023 인도네시아 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은 오는 9월 27일(수)부터 10월 1일(일)까지 5일간 팡오랑 BSD ICE(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는 2023 인도네시아 국제도서전(IIBF 2023)에서 주빈국으로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

참가한다. 이번 주빈국 참가는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인도네시아 새로운 5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양국 간 출판문화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화원이 마련한 프로그램은 ▲강병인 캘리그래프 작가 초청 대형 작품 시연과 워크숍(9.27) ▲수교 50주년 기념 시집 저자 벤넨 릴리스A 초청 한국-인도네시아 시인 낭독

회(9.27) ▲이치선 북디자인 북콘서트와 워크숍(9.28) ▲추석 특집행사(9.29)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저자 정경운 초청 북콘서트 및 팬사인회(9.30) ▲인도네시아 라인 웹툰에서 6천 9백만 명이 구독하는 웹툰 작가 '령' 초청 북콘서트 및 시연회와 팬사인회(10.1) 등 다채로운 행사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후불 결제 늘면서 부실률도 급등...20대가 절반

후불 결제 1년 전보다 61.3% ↑... 은행 약 3배 부실률 속 20대 '빛의 함정' 우려

신용카드 보급이 활발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선구매 후지불(BNPL) 방식 결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실률도 급등하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부실 채권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빛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등에 따르면 인구 약 2억8천만명인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카드 보급률은 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은 75%에 달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지갑 사용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BNPL(단기금융) 서비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BNPL은 소득을 증빙하고 신용 점수 등이 필요한 신용카드와 달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민등록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도 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지난 5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 BNPL 서비스 사용자는 7,28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3%가량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7.8%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20대 이하 순이었다. 연간 사용액은 지난해 5월~올해 4월 말 기준 26조1천400억 루피아(약 2조2천6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61.3%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



▲인도네시아 대표 후불결제 업체 크레디보 [크레디보 홈페이지 캡처]

마켓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BNPL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32.5%씩 성장해 2028년에는 253억 달러(약 33조6천억원)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NPL 시장이 커지면서 연체율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BNPL 대출의 부실채권(NPL) 비율은 6.78%에 달한다. 은행의 NPL 비율(2.44%)과 비교하면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NPL의 절반은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차지한다. OJK는 일단 BNPL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부실 규모는 심각하지는 않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20대들이 이런 신용 서비스를 받은 뒤 꼭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데 있다. 아직 신용 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연체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다. OJK는 이런 연체 기록이 개인별 신용 데이터베이스(DB)에 모두 기록되며 이런 기록으로 인해 향후 자동차나 집을 살 때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심지어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PT ALLJI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저압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LJIUM GREEN NUSA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신발은 약 1만년 전의 것이다. 기원전 7000~8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산썩나무 껍질로 만든 샌들이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동굴에서 발견됐다.

가족 신발로는 아르메니아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5500년 전의 것이 가장 오래됐다.

화석으로는 프랑스 남서부 쿠삭동굴에서 발견한 2만8천~3만1천년 전 신발자국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실제 인류가 신발을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신발 소재들이 쉽게 썩는 것들이어서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언제부터 신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재로서는 발가락 크기나 모양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만 할 뿐이다.

신발을 신을 경우 발가락 구조에 영향을 미쳐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가 좁아진다는 점에 착안해 발가락 유골의 변화를 보고 신발 착용 여부를 추정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에릭 트린카우스 교수(고인류학)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 인류가 신발을 시작한 시기를 약 4만년 전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2008년 '고고학저널'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에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약 4만년 전 유골부터 다리는 그대로인데 발가락만 갑자기 작아졌다.

그는 그 이유를 신발로 꼽았다. 수만년으로 추정되는 신발의 역사를 10만년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최근 나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벨스만델라대 연구진은 남아공 남부 해안지역의 고대 인류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최대 14만8천년 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신발 자국을 발견했다고 국제학술지 '이코노스'에 발표했다.

원주민의 신발 자국과 일치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세 군데의 발자국 화석을 살펴봤다.

연구진은 먼저 남아공 남부해안 지대의 가든루트 국립공원 클라인크란

츠 지역 내 55cm 길이 석판에서 2개의 선명한 발자국을 주목했다.

그러나 발자국 2개의 경우 가장자리가 매우 매끄러웠다.

발가락으로 볼 만한 모양의 흔적이

4개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구캄마자연보호구역에서도 4개의 발자국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3개는 가장자리가 매끄럽고 발가락 흔적이 없었다.

보기 위해 남아프리카 원주민인 산족의 신발을 모방한 신발을 만들어 실험했다.

산족의 신발은 두겹의 소가죽을 붙여 만든 밀창에 3개의 구멍을 뚫은

이 실험대로라면 클라인크란츠의 발자국 화석은 신발 자국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오래된 발자국은 15만3천년 전 그러나 신발 자국이 찍힌 시기는 불확실하다.

클라인크란츠 인근 암석은 7만9천~14만8천년 전, 구캄마자연보호구역 인근 암석은 7만3천~13만6천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것이 곧 발자국 화석의 형성 연대는 아니다.

다만 그리스의 테오페트라 동굴에도 남아공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다.

13만5000년 전 형성된 바위에서 발견된 4개의 발자국 가운데는 신발을 신은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1개도 포함돼 있다.

만약 이것이 신발 자국이 맞다면 이 신발의 주인공은 네안데르탈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호모 사피엔스는 아직 유럽까지 이동해 오지 않았다.

앞서 벨스만델라대 연구진은 남아프리카 남쪽 해안지대에서 15만

3000년 전 발자국을 발견해 지난 4월 '이코노스'에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근 다른 두 곳에서 발견된 12만4000년, 11만7000년 전 발자국보다 앞선 것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호모 사피엔스의 발자국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한겨레]

인간은 언제부터 신발을 신었을까?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발자국의 주인공이 신발을 신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두 발자국 중 하나에는 신발 밀창에 끈을 매단 것으로 보이는 세개의 작은 구멍도 있었다.

연구진은 이어 아도코키리 국립공원에서 암석 조각에서 발가락이 없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발자국은 아치형 발바닥이나 발가락 모양으로 식별해낸다.

연구진은 그러나 세군데의 발자국에선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발 자국일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런 추정이 맞는지 알아

뒤 소가죽 끈을 끼워 완성한다.

연구진이 직접 이 신발을 신고 젖은 모래언덕 위를 걸어봤다.

클라인크란츠에서 발견한 발자국과 비슷한 자국이 나왔다.

발가락이나 발바닥 아치 흔적은 나오지 않고 발자국마다 끈을 고정할

3개의 구멍만 찍혔다.

스마트그리드협회, 국내 기업 인도네시아 진출 초석 다져

인도네시아 스마트그리드 이니셔티브와 MOU 체결 산·학·연 협력 강화... 국제 네트워크 구축 맞손



구자균 스마트그리드협회장(오른쪽)과 Moh Ikhsan Asaad 인도네시아 스마트그리드 이니셔티브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인도네시아와 국제 스마트그리드 공조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9월 14일 인도네시아 스마트그리드 이니셔티브(PJC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SEF(Global Smart Grid Federation) 일원인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학·연 전 분야에 걸쳐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또 각종 기술·교육·세미나 등에 관한 정보 교류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국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업

이 진출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소비량은 3억 3,000만TOE 규모로 에너지 수요가 매년 약 7%씩 증가하고 있다. 2025년 5억9,000만TOE에 이어 2050년에는 12억4,000만TOE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2025 인도네시아 스마트그리드 구축 로드맵'을 통해 ▲양방향 검침 인프라 개발·이행 ▲배전망 장비·네트워크 구성 개선 ▲자산관리 이

행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계획을 수립했다.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들로 이뤄진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섬들에 송배전망을 연계하기 힘들어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한전 주도로 에너지자립 등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이미 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이 인도네시아 마이크로그리드 산업 진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일렉트릭파워

Interior Design Construction & Space Identities by HDG

Senopati, Kebayoran baru, South Jakarta - Indonesia | linktree/HDGinterior
P : +6221 7205 007 M : +62 812-8759-0706 (ID) / +62 811 1124 998 (KOR) E : admin@hdg21.com



Material Sourcing



Interior Construction



Furniture Production



Interior Design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서울에 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브랜딩, 디자인 설계, 시공, 가구 집기, 인테리어 데코 까지 A to Z의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0년대 초, 뉴욕에서 도쿄에 이르는 고급 패션의 도시들이 주도하면서 스트리트 스타일이 국제적인 패션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가죽 부츠와 클래식한 드레스 슈즈의 매력이 지속되었고, 캐주얼한 킥슈즈에 대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두 청년, 자키 위나따(Zaki Winata)와 파미 파이살(Fahmi Faisal)은 하이잭 샌(Hijack Sandals)을 설립하며 정장화 업계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파미는 7월 4일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샌들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시장에 대응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용성에 대한 평범한 생각

하이잭 샌들은 처음부터 오로지 샌들에만 집중했다. 파미는 인도네시아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신발 제품인 샌들을 “멋지고 진보적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시장이 간과했다고 말했다.

하이잭 샌들은 대부분 화려하고 편안한 ‘캠핑 시크’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해 왔다.

유명한 남성(gorpcore) 룩을 넘어 미학을 확장하는 동안에도 철학적인 관통 라인의 흔적은 디자인 전반에 걸쳐 남아 있다.

시작

2010년에 파미는 대학 마지막 해에 논문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현재 회사 파트너인 자키가 자신이 사랑하는 따식말라야(Tasikmalaya)에서 만든 따룸빠(Tarumpah) 샌들을 계속 신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는 매일 오픈 샌들을 신고 스페다 온헬(로드스터 자전거)을 타고 대학에 다녔다고

회상했다. 자키는 당시 대학에서 가장 상징적인 학생이었고 당연히 퇴학을 당했다.

하지만 파미는 자키의 독특한 스타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둘은 같은 해에 Hijack Sandals를 공동 설립했다.

파미는 자키와 장인 세 명,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작은 오두

는 것이 중요했다며, 초기 공급업체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료 선택은 자신들의 디자인 접근 방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멀티미디어 마케팅

업계에서 차별화된 샌들을 선보이기 위해 소재를 찾는 끝

파미는 마케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고 초기 5천만 루피아의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쿄 런치패드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

는 다른 기회를 잡았다고 파미는 말하며 새로운 시장 진출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도전

파미는 복잡한 법적 절차, 물류 고려 사항, 가격 격차 등 해외 시장 진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일본 시장에는 3배의 가격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소셜 미디어 캠페인에 크게 의존하던 이 젊은 회사는 일본 시장이 ‘구식’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Hijack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인쇄물을 만들고 네트워킹을 돌아다녔다고 회상했다. 마케팅 전략의 변화는 효과가 있었고 사람들은 포스터를 보기 위해 왔다가 제품을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곤 했다고 말했다.

파미는 또한 재일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가 초기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도 강조했다.

그는 재일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서류 제출을 도와주고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인허가 및 인증에 대해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이라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이후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하이잭 샌들은 인도네시아에 3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40만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는 등 탄탄한 입지를 자랑한다. 공장과 소매점에서 약 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또한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러시아, 영국에도 소매 유통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샌들로 정장화 산업 ‘장악’



▲도쿄의 활기찬 중심부에 위치한 시부야 파크 쇼핑몰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신발 회사 하이잭 샌들의 매장(하이잭 샌들/제공)

막에서 2010년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임대하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많지 않은 수익이었지만 집주인과 수익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하이잭 샌들은 큰 비전과 500만 루피아의 소 자본으로 시작했다.

파미와 자키는 장인, 원자재, 신발 판매자의 중심지이자 현지 패션 랜드마크로 유명한 반둥의 시바두윳(Cibaduyut) 지역을 둘러보며 디자인과 소재를 탐색하고 소규모 장인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시장을 넓혀 일부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생산 센터는 여전히 반둥에 있다.

파미는 적합한 공급업체를 찾고 완벽한 파트너십을 구축하

는 2014년에 시그니처 스타일을 완성했다.

파미는 다음 컬렉션을 위해 새로운 원단과 소재를 계속 탐구하며 항상 트렌드를 앞서나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침내 브랜드 인지도를 얻기까지 약 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파미와 자키는 주로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와 전시회에 참석했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대부분의 초기 단계 브랜드와 달리, 하이잭 샌들은 2013년 온라인 마케팅에 진출하면서 그래픽 디자인 및 영화 촬영과 같은 시각적 미디어의 힘을 받아들여 인도네시아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부상하는 것을 활용했다.

을 얻은 하이잭 샌들은 반둥, 자카르타, 발리에 있는 매장을 통해 해외에서 유망한 수요를 파악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한 후, 2022년 9월 일본에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패션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도쿄의 주요 상업 중심지인 시부야에서 첫 쇼를 개최한 후 파미는 일본 관객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현지 시장이 이 신생 브랜드를 주목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이 자신들을 회의에 초대하면서 PARCO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언급했다.

Hijack Sandals는 50년 전통의 유명 쇼핑 센터인 시부야 PARCO에서 3월부터 6개월 동안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 결과 더 많은 소매점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6월에는 일본 국내외에서 가장 유행을 선도하는 바이어들을 끌어들이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컬렉션으로 유명한 100년이 넘는 고급 백화점인 이세탄 신주쿠에 또 다른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되었다.

그 이후로 도쿄의 ‘존재감’만으로도 밀라노, 런던, 파리에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

틈스 목금형 (틈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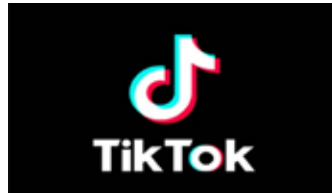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인도네시아, SNS서 상품 판매 금지키로 ... “틱톡 견제”

틱톡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지난해 전자상거래 중 5% 차지...갈수록 늘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회관계 망서비스(SNS)를 통한 상품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는 중국의 SNS 플랫폼 틱톡(TikTok)이 전자상거래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3일 일간 콤포스 등에 따르면 제리 삼부아가 통상부 차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SNS와 소셜 커머스는 결

합할 수 없다” 며 예를 들어 틱톡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홈쇼핑처럼 실시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상품 거래 규정에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품 판매 관련 규정이 없다며 “규정 개정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상품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처럼 틱톡을 견제하는 것은 틱톡을 통해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되고, 토코피디아와 같은 자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위

축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인구 약 2억8천만명의 인도네시아에서 틱톡 가입자는 1억2천500만명이 넘는다. 또 틱톡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200만개에 달한다. 컨설팅 업체 모멘텀 워스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 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520억 달러(약 69조1천억원)였으며 이 중 5%는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뤄졌다.

이렇게 틱톡을 통해 거래된 상품의 대부분은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에는 100달러(약 13만3천원) 미만의 외국 상품은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기도 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는 많은 인구와 스마트폰 확산, 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2025년에는 950억 달러(약 126조3천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138g 초경량 러닝화 등장... 아디다스, 레이싱화 새 시대 열었다

아디다스가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가벼운 138g의 레이싱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EVO 1(사진)’을 공개했다. 아디오스 프로 3에 비해 약 40% 더 가벼운 138g(남성 270mm 사이즈 기준)이라는 혁신적인 무게로 초경량 레이싱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15일 아디다스에 따르면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EVO 1은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엘리트 선수들과 마라톤 기록 단축을 목표로 하는 일반 러너들 모두에게 더 빠른 스피드를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발이 가볍다는 것은 선수들이 장시간 레이스에도 빠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록 단축에 큰 도움을 준다. 게다가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EVO 1은 신발 전체의 약 60%에 포어풋 로커 구조를 적용해 주행 시 추진력을 극대화시켜,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번 제품 개발에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페레스 첵치르치르와 메이저 마라톤 2회 우승에 빛나는 벤슨 키프루토 등 세계 최정상 선수들의 테스트를 통한 피드백이 반영됐다. 아디다스 관계자는 “가장 가벼운 러닝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디제로 컬렉션의 최상위 기술만을 적

용시킨 제품을 연구했다” 며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EVO 1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탄생했다. 올가을 베를린을 시작으로 다양한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EVO 1을 신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세우게 될 새로운 기록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EVO 1은 국내에서는 올 가을 한정 수량으로 일부 판매되고, 정확한 출시일과 출시 가격은 향후 아디다스 코리아 소셜 계정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올버즈, 스타일과 편안함 갖춘 클래식 컴포트 쿠리어 'Courier' 출시

올버즈(Allbirds)가 스타일과 편안함, 지속가능성을 더한 클래식 컴포트 스니커즈 쿠리어 'Courier' 를 선보인다.

쿠리어 'Courier' 는 기존 내구성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출시된 레트로 스니커즈다.

올드스쿨 트레이닝 슈즈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인다.

특히 친환경 캔버스 소재를 활용하여 올버즈 특유의 편안함과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면서 클래식한 스타일과 내구성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애쉬리 커모 올버즈 제품 디자인 부사장은 "쿠리어 'Courier' 의 특징은 다재다능에 있다. 우리 고객들은 언제나 이동하면서 다이내믹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멋지게 보이고 느껴야 한다" 며 "올버즈는 고객들에게 스타일과 편안함, 지속 가능한 소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Allbirds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함과 무한한 편안함

을 갖춰 고객들의 바쁜 일상의 순간들에 잘 어울리는 헤리티지 룩을 선보이게 되었다" 고 말했다.

쿠리어 'Courier' 는 5가지 다양한 컬러웨이로 제공되며, 다양한 소재의 레이어드 디자인과 정교한 스티칭 및 오버레이

를 선보인다.

특히 기능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강조하는 천연 소재로 제작된 것이 장점이다.

어퍼는 유기농 면 캔버스로 제작되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 일상적인 착용에 적합하다.

신발 안감은 TENCEL™ 리오셀과 재생 폴리에스터 블렌드로 제작되어 편안한 탄력성과 부드러운 통기성을 제공한다.

미드솔은 오랜 시간 동안 발에 편안한 쿠션을 제공하는 SweetFoam™ 을 사용했다.

SweetFoam™ 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기반 미드솔 품이 아닌, 사탕수수 기반의 Green EVA로 제작되었다.

천연 고무로 제작된 아웃솔은 유연성과 내구성을 보여준다.

아웃솔은 기능적인 그림을 위해 부드러운 파도 모양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방식으

로 스타일을 강조한다.

올버즈 신제품 쿠리어 'Courier' 는 남성용과 여성용 모두 출시되어 다양한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으며, 올버즈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세계일보]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Korea Genuine Lubricants

(운할유)



Shell

유압작동유 • 열매체유 • 기어유 • 엔진오일(발전기) • 기타

유인대 대표 0811 83 43 98 021 598 0222
 이광선 부장 0812 1007 7732 08118411 134 (WA)
 Natasha 0812 1121 1010 yusung.jayaabadi@gmail.com



PT. YUSUNG JAYA ABADI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디케이앤디, ‘유럽 친환경 섬유품질인증’ 1등급 획득... 친환경 ESG 행보 가속화



글로벌 합성피혁제조사인 (주) 디케이앤디(대표이사 최민석)가 생산한 의류용 인조 피혁이 유럽 친환경 섬유품질 인증인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Oeko-Tex Standard 100)’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은 피부와 접촉하는 섬유의 무해성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친환경 국제 인증이다.

제품의 원료는 물론 중간 공정, 최종 완제품과 부속품까지 까다로운 실험 기준을 통과해야만 획득이 가능하며, 해당 라벨이 있는 섬유 제품들은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특히, 디케이앤디가 획득한 1등급은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의 전체 4개 등급 중 최고 등급으로, 만 3세 미만 영유아의 피부에 닿아도 안전한

제품에만 부여된다.

오코텍스 1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의류용 인조 피혁인 소프젠테카(Sofzenteka), 바이오젠테카(Biozenteka), 윈더레그(Wonder-leg) 총 3종이다.

기존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스판덱스와 같은 합성 섬유 대신 효성티앤씨의 친환경 페트병 리사이클 섬유 ‘리젠’이 사용됐고, 디케이앤디의 폴리우레탄 습식 가공 기술이 적용돼 불륨감, 신축성, 통기성 등의 품질도 강화됐다.

디케이앤디는 해당 친환경 인조 피혁을 일본 섬유기업 ‘테이진(Teijin Frontier)’, 프랑스 랑방그룹 ‘월포드(Wolford)’ 등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으며,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섬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판매량을 넓혀갈 계획이다.

디케이앤디 최민석 대표이사는 “이번 유럽 친환경 섬유 품질인증 획득을 통해 ESG 경영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

다”며, “디케이앤디는 변화하는 친환경 시장 환경에 맞춰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의류용 인조 피혁 제품을 리사이클 섬유, 바이오 섬유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에 설립된 글로벌 합

성피혁 제조사인 디케이앤디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소니, 발망, 몽클레르, 톨루레몬, 나이키 등 글로벌 고객사에 합성피혁과 부직포 등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현재 디케이앤디는 친환경 소

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섬유 소재를 재활용한 리사이클 원단 및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매스 섬유 등 친환경 섬유 소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뉴스핌]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을 통해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 관련 회사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21 1122 8827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a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삼호 보일러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株式会社 三湖 三湖 三湖
SAMHOBOILERCO., LTD.
www.samhoboiler.com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PT. YUSUNG JAYA ABADI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SUNTECH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PRODUCTS



ST-6040HS-C3
3-컬러 컴퓨터 패턴 재봉기



SFT-10616
코딩 자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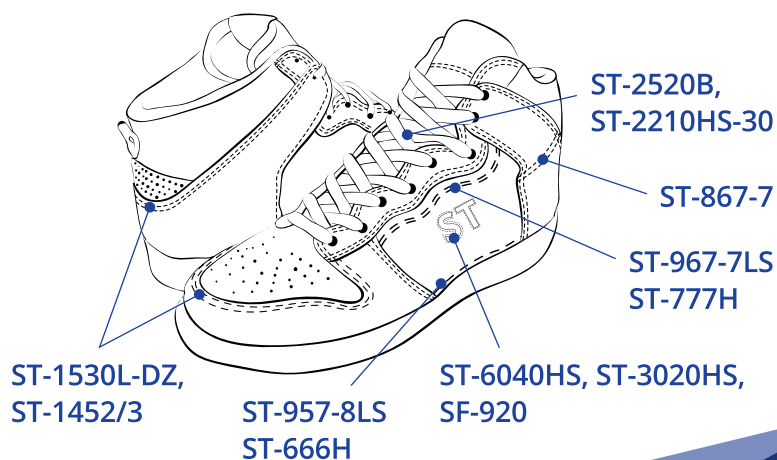


ST-666H(롤러 1본침), ST-777H(롤러 2본침)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168 Series
아리안스 재봉기

APPLICATIONS



CIKARANG OFFICE

Ruko Podium Blok A No. 1 dan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17550
TEL 021-2210-4936 FAX 021-2210-4994
021-2210-4937

JEPARA OFFICE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 006 RW. 001,
Pecangaan Jepara
TEL 0291-752-0288 FAX 0291-752-0588

REMBANG OFFICE

JL. Panglima Sudirman No. 156 6 RT. 002 RW. 03
Kabonganlor, Rembang, Jawa Tengah
TEL 0295-698-3799